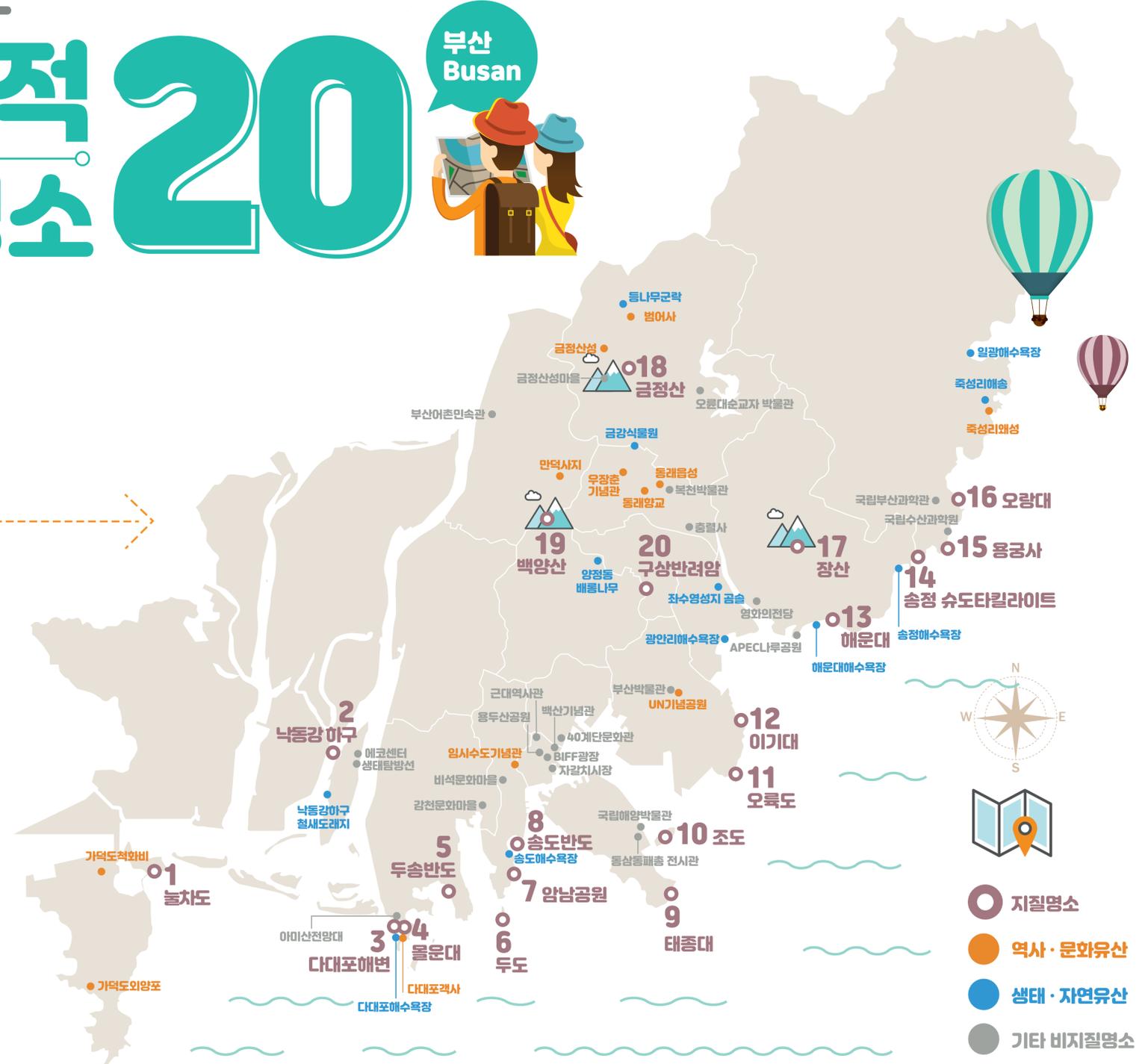


부산국가지질공원과 함께 떠나는~

세계적 지질명소 20



01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잠들어 있는 섬 늘차도 Nulchado

가덕도 북동쪽에 위치한 늘차도는 대포읍 상부에 해당하는 안산암질 화산암 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해수면 변동의 기록을 간직한 해안단구 등의 지질·지형유산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만든 세바지 인공동굴 등의 역사유산도 관찰할 수 있는 명소이다.



02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연의 모래섬 낙동강 하구 Nakdong Estuary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는 낙동강이 남해와 만나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현성 삼각주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주, 사구, 석호 등 다양한 지형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 속 절세도 관찰할 수 있는 으뜸 명소이다.



03 고대 박물관으로 가는 바닷길 다대포 해변 Dadaepo Beach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 온 양질의 모래밭과 완만한 경사, 맑은 수심과 따뜻한 수온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다대포 해변은 낚시, 서핑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경쾌한 모래 해변을 따라 해안사구, 사구식물, 연못 등 다양한 지질 및 생태기록을 관찰할 수 있다.



04 고대의 모든 것이 담긴 박물관 물론대 Morundae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 말의 하부다대포층과 그 후 부산의 지각변형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단층, 단층암, 암맥, 광맥, 지르르, 사중리, 온좌석 등 다양한 지질특성을 간직한 지질학의 교과서라 불릴 만한 곳이다.



05 공룡의 낙원을 뒤룬든 지진 두송반도 Dusong Peninsula

공룡의 전성시절이었던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말의 부산지역 고환경을 보여주는 명소로 공룡알화석과 파란화석이 나타난다. 특히 과거 지진활동이 기록된 다양한 암맥과 백악기말 건조했던 기후를 나타내는 켈리리트 복합층이 관찰된다.



06 불의 신(VULCAN)이 사는 오수 두도 Dudo

송도반도 남쪽의 무인도로 해안절벽을 따라 백악기 말의 하부다대포층과 화산암류가 절경을 이루며, 공룡공격화석과 공룡알동지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상자와 같은 지질명소이다.



07 그 옛날 공룡들의 놀이터 암남공원 Amnam Park

송도반도 남부에 위치한 암남공원은 500여 종의 해양식물과 아생화 등 도심에서 보기드문 자연생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하부다대포층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기암 절벽이 푸른 바다와 함께 절경을 이룬다.



08 불의 신(VULCAN)이 사는 오수 송도반도 Songdo Peninsula

한국의 지질노두 150선에 선정된 다대포층이 해안선을 따라 하부부터 상부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공룡공격화석과 공룡알동지화석, 석회질고토암, 암맥, 단층 등의 지질기록을 송도해수욕장 경관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09 오수에서 태어나 바다와 맞선 바위들 태종대 Taejongdae

명승 제17호인 태종대는 백악기말 호수에서 쌓인 퇴적층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해식대, 피석대, 해안동굴 등의 암석해안이 구상호프스, 꽃다발구주, 슬럼프구주 등 신비로운 지질구조와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는 부산의 대표 해안경관지이다.



10 고대인의 생활이 녹아 있는 섬 조도 Jodo Island

조도는 백악기말 화산암과 퇴적암(태종대층)의 다양한 지질 특성을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탐방로를 둘러보며 관찰할 수 있으며, 섬 안에는 국립해양대학교 캠퍼스가, 인근에는 국립해양박물관, 태종전시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11 바다를 향한 불의 신(VULCAN) 오륙도 Oryukdo Islets

명승 제24호인 오륙도는 12만 년 전까지는 육지의 연결된 작은 반도였던 것이 오랜 세월동안 거센 파도에 깎여 분리된 것으로, 피석대지, 해식절벽, 해식동굴과 같은 해안침식지형이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12 바다를 향한 불의 신(VULCAN) 이기대 Igidae

약 8천만 년 전 격렬했던 안산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 화쇄류가 쌓여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도에 깎인 피석대지, 해식동굴, 돌개구멍 등이 해안도심경관과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다.



13 화산을 품은 아름다운 해변 해운대 Haeundae Beach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서지 중 하나인 해운대는 길이 약 1.5km에 달하는 해수욕장과 해변의 서쪽에 위치한 동백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해에서 유일하다 고 알려진 해수-담수 혼합형 온천인 자연온천 온천을 만끽할 수 있다.



14 지구를 뒤룬든 흔적 송정 슈도타킬라이트 Songjeong Pseudotachylytes Nulchado

기암은 시암리의 한천 해변에 위치한 슈도타킬라이트는 단층작용으로 인한 고속마찰열로 용융된 물질이 굳어 만들어진 단층암으로 수려한 해안 경관과 국내에서 희소성이 매우 높은 지질유산이 어우러져 있다.



15 고고암을 품은 고대의 바위 용궁사 Haedong Yongungsa Temple

기암은 해안가에 위치한 용궁사에는 유전층과 화산암류와 불교사찰경관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관광지인 해동 용궁사 주변으로 동부사천 관광단지 조성되면서 해마다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6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잠들어 있는 섬 오랑대 Orangdae

배어난 일출을 자랑하는 오랑대는 포석암과 다양한 방향의 절리군이 발달한 기암 절벽과 부딪히는 파도가 이루어져 절경을 이루는 명소다. 또한 암석의 표면에는 과거 목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유리 파편이 관찰되어 역사적 향기가 남아 있는 곳이다.



17 불타는 대지 장산 Jangsan

약 7천만 년 전 유문암질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 용암, 화쇄류로 이루어진 산으로 구상유문암, 반상유문암, 유문암질용암 등 다양한 화산암류와 암운록, 니덜 등의 용암형 지형을 해안도심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18 신화가 잠든 바위산 금정산 Geumjeongsan

약 7천만 년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 생성된 화강암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부산의 뿌리를 이루는 산이다. 오랜 세월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기암절벽, 트르, 니덜, 인셀베그, 볼록스드림 등 우아한 화강암을 역사유적 속에서 즐길 수 있다.



19 다양한 암석들의 하모니, 부산의 역사책 백양산 Baekyongsan

약 8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화산쇄설암, 호수에서 쌓인 퇴적암, 지하에서 이들을 관입한 화강암 그리고 석회질 고토암층이 녹아 만들어진 석회동굴과 폭포지 부산의 지질발전사와 독특한 지형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명소이다.



20 마그마가 빚어낸 천연 공예품 구상반려암 Orbicular Gabbro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 만들어진 화강암 일대의 반려암은 암석 표면에 기운을 중심으로 중심원을 그리며 광물들이 배열된 구상조직을 잘 보여준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희귀하여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지질명소이다.

